왜 지옥은 무서운 곳인가?

여러분은 지옥이 왜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옥이 왜 무서운 곳이냐니? 지옥이 무서운 건 당연한 것 아닌가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옥이 무서운 곳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말하나마 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지옥을 그토록 무서운 장소로 만드느냐라는 질문은, 지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하는 좋은 질문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없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가라는 질문을 곰곰히 따져보면,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 원인과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옥이 무섭습니까? 왜 지옥은 무서운 장소일까요? 지옥에서 사람들이 불타기 때문입니까? 벌레들에게 살이 파먹기 때문입니까? 쇠창살에 몸이 꿰뚫리기 때문입니까?

그 어떤 표현으로도 지옥을 다 묘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졌던 그 어떤 잔인한 일들조차도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지옥을 지옥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도 끝이 있다면, 그 끝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끝이 없다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가장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수요예배 때 성도분들게 여쭤보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숫적 열세, 무기의 빈약함, 재정적인 어려움, 동료들의 배반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모든 요소들도 독립 운동가들을 힘들게했겠지만, 그 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끝이 있다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군생활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생방 훈련을 하고, 유격훈련을 하고, 행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옥의 가장 큰 무서움은 고통의 강도가 아니라 **시간의 영원성**이라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지옥을 가장 지옥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니 어느 정도 고통 받다가 풀려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지옥은 반드시 피해야 할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영혼구원의 역사만큼 중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26.11.8 여러분의 가족 이목사

주일오전예배 말씀요약

요 16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불확실한 삶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감사의 이유를 가지도록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비유로만 알려주신 것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밝히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는 승리를 보장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 자신 뿐 아니라 제자들도 승리케 합니다.

구역모임

1. 얕봤던 사람이 알고보니 대단한 사람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도 그렇게 무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2. 누군가와 깊은 교감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런 교감을 나눠본적이 있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까?

3.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대상의 유무는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4.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